



오늘의 새싹을 키우는 교육의 뿌리 초등교사노동조합

날 짜 : 2026.08.5.(수)
발 신 : 초등교사노동조합
수 신 : 교육담당기자

위원장 강석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134 14층 초등교사노동조합

[성명서] 교육부 2027 공립 초등교사 임용 사전예고, 교육 여건을 위한 선발 확대가 필요하다.

학생수는 줄어도,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은 줄지 않는다.

- 2027학년도 초등교사 사전예고 2,821명, 전년보다 292명 감소
- 학급담임제에 맞는 최소 교원 규모 보장해 소규모학교 지역간 교육격차 막아야
- 학생 맞춤형 교육과 사회적 요구는 늘어나는데 교원은 다시 감축
- 국가정책 수행 인력은 별도 정원으로 확보하고, 최종 선발 규모 확대해야

1.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강석조, 이하 초등교사노조)은 2027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인원이 전국 2,821명으로 발표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2026학년도 선발 인원 3,113명보다 292명, 약 9.4% 감소한 규모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를 다시 교원 감축으로 연결한 결과다.

2. 초등학교는 학급담임제로 운영된다. 학급이 존재하는 한 이를 책임질 담임교사가 필요하며, 담임교사를 강사나 순회교사로 대신하기 어렵다. 특히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원까지 줄이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 순회교사 배치와 수업 공백이 늘어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초등교원 수급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만이 아니라 학급 수와 학교별 최소 교원 규모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3.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은 줄지 않는다. 오늘날 초등학교는 기초학력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통합교육, 다문화교육, 학교폭력 예방, 디지털·AI 교육, 학생 안전과 돌봄 등 더욱 다양하고 세밀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원을 줄이는 것은 정책의 방향과 수단이 서로 모순되는 일이다.

4. 특히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여러 교과와 수업과 평가, 생활교육과 학부모 상담을 담당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발달 특성, 가정환경과 정서 상태까지 살펴야 한다. 학생 수의 총량은 감소하더라도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원은 더욱 개별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교원 수급은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니라 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의 범위와 깊이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5. 학교에 새로운 정책과 역할을 부과하려면 그에 필요한 교원 정원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늘봄학교 확대에 따라 늘봄지원실장 등의 직위를 마련한 것은 새로운 국가정책을 기존 학교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필요한 인력을 기존 교원 정원 안에서 이동·충당한다면, 결국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칠 교사만 줄어들게 된다.

6. 교원 정원 확대는 교사의 업무 부담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지도할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보장하여, 학생이 더 안전하고 충실한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요구다. 학교에 요구되는 역할은 계속 늘리면서 교원은 줄인다면 교육부가 강조해 온 학생 맞춤형 교육과 공교육 강화는 실현될 수 없다. **교원 감축으로 얻는 단기적 재정 절감이 학생의 교육 기회와 공교육의 질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인지 교육부는 답해야 한다.**

이에 초등교사노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요구한다. 9월 9일 발표될 2027학년도 초등교사 최종 선발 인원을 사전예고 규모보다 확대하라. 또한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수급 기준을 학급 수와 학교별 최소 교원 규모, 학생 지원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국가정책과 직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그에 상응하는 정원으로 추가 확보하라.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원을 줄이는 것이 교원 수급정책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 목적은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감축의 숫자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과 공교육의 질을 기준으로 교원 수급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2026. 8. 5.

초등교사노동조합